

김형익 목사의 율법과 복음

3강 신자는 누구인가2 (롬 6:3~6)

1. 그리스도와의 연합(Union with Christ)

신자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 3~11절에서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을 설명한다. 사도가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교리이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놀랍게 설명해주는 교리이다.

2. 신자 =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곧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신분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고 선언한다.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체험은 따라오게 되고 우리는 더 분명한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연합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곧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다. 사도의 설명을 보면, 먼저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다(3,4,5,6,8).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신자 자신의 죽음이었던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경험이 아니라 사실이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20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된 자이다(4). 장사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확정해 주는 말이다.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어 장사된 자다. 또 신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된 자다(4,5,8).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신자도 부활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넘어서서 이미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4이하에서도 말한다. "공출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동사들,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는 모두 과거시제이다. 심지어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은 자라고 선언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교리가 설명하는 영광스러운 면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신분은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신자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신자의 체험 이전에, 신자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앞에서 사실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거나 체험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교리를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한다. 이 사실이 성령님의 역사로 믿어질 때, 체험은 따라오게 되고 우리는 더 분명한 확신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된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3. '그리스도와 의 연합'의 목적

: '새 생명 가운데 행함(4)' =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11)

신자도 그리스도와 같이 이 새롭고 영광스러운 영역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와 의 연합의 일차적 목적은 한 마디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4절에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새 생명은 부활 후의 생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 나셨다(갈 4:4). 주님은 재림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이지만(히 9:28), 성육신하실 때에는 죄와 관련해서 오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죄를 가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다. 그때 주님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셨고 유혹도 받으셨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나자, 주님은 더 이상 율법 아래 계시지 않았고 더 이상 썩어질 육체도 가지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그전에 취하셨던 죄와 율법에 대한 모든 감정적인 관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들어오셨던 그 영역, 그 상태를 완전히 끝내셨다. 주님은 기도하셨던 대로 성부 하나님과 누리셨던 원래의 완전히 영광스러운 관계로 다시 돌아가셨다(요 17:5). 그렇다면 4절에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신자도 그리스도와 같이 새롭고 영광스러운 영역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11절에 쓴 대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처럼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자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말은 부활 후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 들어가 영광중에 거하시는 삶을 말한다. 신자는 자신을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는 11절 말씀은 일종의 권면이다. '여기라'는 말은 심리적 설득이나 자기최면을 걸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신자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말이다. 이것은 죄에 대해 죽으라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라는 명령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알고 믿으라는 말이다. 사실 이 말씀은 신자의 체험이나 느낌과는 정반대이다. 신자도 현실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권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아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은 것과 같이 믿으라는 말이다(롬 4:19~20).

4. 죄는 신자를 주관하지 못한다(14).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라면, 율법과 율법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냐는 반론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적 답변이 14절에서 일차적으로 주어진다. "죄가 너희(신자)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신자를 주관치 못하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사나는 것이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 변개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말이다. 죄가 죄에 대해서 죽은 신자를 주관할 수 없는 이유는 신자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법이 있어야 죄가 있는데, 신자가 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죄가 그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율법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둘 중 하나다. 율법 아래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 행위와 공로에 의존한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삶은 아주 드물게 자만으로 인도하거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망감과 침체를 벗어날 수 없게 한다. 결국, 자기 행위에 매여 살게 만든다. 그러나 신자는 죄가 주관치 못하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지위를 인식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비록 넘어지고 범죄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얻은 그 영광스러운 신분은 변개할 수 없는 것임을 그는 안다. 신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침체와 절망감과 무력감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서 죄에 대해 죽었으며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비록 죄가 내 죽을 몸에 남아있어서 내가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죄와 싸워야겠지만 나는 죄의 지배 아래 결코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죄가 다시는 나를 주관할 수 없다. 죄는 다시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죄는 나의 구원과 나의 궁극적 운명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구원 얻는 신자가 가지는 영광이 여기 있다. 신자가 기뻐해야 할 이유도 여기 있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인 줄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다.

5.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이해한 사람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받은 사람이 과연 죄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논리이다. 진짜 구원받은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4).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6).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다. 그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이 한 몸으로 연합한 자다. 물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짓는 것이 그의 주요한 삶의 경향이 될 수 없고 죄가 신자를 주관할 수 없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는 말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말이다.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신칭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한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신자는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답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싶어 하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의 능력이다. 이 능력을 아는가? 그 능력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는가?